

# 소련·東歐·中共의 經濟·에너지動向

## I. 소련

### 1. 최근의 經濟動向과 原油生産

1983년 소련의 鑛工業생산실적은 前年에 비해 4.0% 증가하였다. 「소련經濟에 瑞光이 비치기 시작했다」고 성급한 樂觀論을 펴고 있는 것도 주로 이를 근거로 하는 말이다. 4%선의 伸張은 1979년 이래 처음 있는 일로서 前年實績을 1포인트 이상 상회했던 것은 1973년 이래 최초의 일이었다.

勞動生産性 상승률도 3.5%로서 1981년의 2.7%, 1982년의 2.1% 보다 상당히 높아졌다. 1984년 2월부터 시작된 체르넨코 정권하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회복의 징후가 보인다고 해도 業種, 또는 품목에 따라서 明暗이 확실히 구분되고 있다. 1981년 이후부터 西시베리아 튜메니油田에서 생산부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 통계발표는 없지만, 西시베리아의 產油量은 소련 全石油生産의 약 60%에 달하는 만큼 이 大油田中의 하나가 부진하게 되자 1984년 1~4月的 全石油生産이 전년 동기비 0.1%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튜메니油田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 지연이 문제로 되어 있어, 石油가 주요 外貨收入

源이라는 점에서 소련 당국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소련 共產黨 機關紙 프라우다는 高品質 파이프라인용 鋼管이 부족하기 때문에 西베리아 북부의 石油·天然가스開發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同紙는 그중에서도 특히 안베르그 天然가스田의 예를 들어, 同開發計劃이 가스田까지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부설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 소련에서는 石油·天然가스의 개발에 사용

〈表-1〉 소련·東歐·中共의 原油生産量推移

(單位: 萬b/d)

	소련	東歐	中共
1972	811	39	85
1973	869	39	110
1974	929	40	132
1975	994	40	149
1976	1,053	40	168
1977	1,106	41	188
1978	1,160	43	209
1979	1,187	41	213
1980	1,222	39	213
1981	1,237	36	204
1982	1,243	41	205
1983	1,233	45	211

되는 高品質耐高壓輸送管의 수요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의 국내생산량은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한다.

튜메니의 1983년 原油생산은 720만b/d 정도로, 西시베리아 原油總量의 약 97%, 소련 原油總生産量의 58%를 점했다. 84년중 튜메니 생산목표는 756萬b/d로 소련 전체 84년 原油생산목표 1,248萬b/d의 60% 이상이 생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83년 튜메니油田의 原油생산은 1964년 商業生産 개시 이래 처음으로 계획량에 미달, 前年比 약 34萬b/d 증가 밖에 달성할 수 없었다.

西시베리아 原油生産은 튜메니지구를 제외하고는 79년 73萬b/d로 부터 80년 56萬b/d, 83년에는 34萬b/d로 떨어지고 있어 소련의 原油생산은 앞으로 튜메니지구에서 연간 최저 26萬~28萬b/d 수준 증가하지 않으면 減産必至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 2. 에너지 코스트

함부르크에 있는 共産圈 經濟調查機關 오스트·마르크트 研究所는 최근 발행한 經濟情報 보고서에서 소련의 에너지 生産코스트의, 대폭적인 상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1) 原油의 톤당 生産코스트는 유럽지역에서 1974년 28.60루블로 부터 83년에는 118.69루블로 西시베리아 지역에서도 18.60루블로 부터 115.83루블로 앙등하였다.

(2) 天然가스의 1,000ft<sup>3</sup>當 生産코스트는 유럽지역에서 74년 26루블에서 83년 53.19루블로, 西시베리아에서도 16.50루블로부터 33.50루블로 상승하였으며, 石炭의 경우도 톤당 生産코스트는 유럽지역에서 79년 18루블에서 83년 37루블로 상승하였다.

(3) 生産코스트의 급상승은 石油와 天然가스에 있어서는 악조건의 시베리아鑛床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었으며, 石炭에 있어서도 유럽지역의 生産력이 낮은 深炭層을 採炭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 현재 소련 에너지공급의 44%가 石油, 26%가 天然가스, 24%가 石炭, 4%가 原子力과 水力, 2%가 泥炭, 木材, 기타 등으로 되어 있는데, 1990년까지는 石油의 비율을 대폭 줄이고, 石炭과 天

然가스의 비율을 높이며, 특히 原子力의 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다. 電力生産의 증가는 1990년까지 전부 原子力發電의 확충에 의해 대처할 방침이다.

## 3. 소련의 石油輸出

1982년 소련의 石油수출은 334萬b/d, 이 중 東歐제국에 대한 수출이 181萬b/d, 西方에 대한 수출이 154萬b/d에 이르고 있다.

OECD諸國에 대한 수출을 살펴보면, 81년 110萬b/d, 82년 141萬b/d, 83년 157萬b/d로 증가하여 왔다. 이것은 소련이 穀物과 프렌트를 Hard Currency로 지불하는 나라로 부터 수입해 와야 Hard Currency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石炭, 天然가스 등을 포함한 總에너지 輸出金額은 總輸出入의 약 5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石油수출은 1984년 2~3월에 急減하였기 때문에 「울 것이 왔다」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同國의 石油輸出은 Hard Currency 획득이 主目的이기 때문에 실령 原油生産이 저하된다 하더라도 국내 에너지 소비를 天然가스, 石炭으로 대체시키고 石油는 계속 수출에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4. 向後 소련의 原油生産 및 輸出

소련의 原油生産은 現5個年計劃(1981~85년) 目標設定에서 전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 이유는 天然가스와 有關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련의 原油生産은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크지 않거나 微增 내지 현상유지의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소련 국내 石油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겠지만, 天然가스와 的 代替關係도 있어 종래와 같은 템포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때, 소련 原油수출의 감소 가능성은 그렇게 급속히 진전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얼마나 절실하게 Hard Currency를 필요로 하는냐는 문제(農業面에서의 豊作·凶作, 기술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東歐제국에 대한 수출을 감소시키고 그 만큼 다른 에너지, 예를 들어 天然가스, 電力으로대

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西方에 대한 수출은 조금씩 減少하면서도 輸出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금번 原油생산이 停滯(내지 후

퇴)와 石油輸出의 일시적 감소는 이러한 기본적인 경향의 하나의 현상일 뿐, 급속한 감산, 수출여력의 상실이라는 판단은 시기상조라 하겠다.

(表 - 2) OECD諸國의 소련·東歐로부터의 石油輸入

(單位: 萬b/d)

	原 油				製 品				合 計			
	80	81	82	83	80	81	82	83	80	81	82	83
소련의輸出	69	60	75	89	48	50	66	68	117	110	141	157
東歐의輸出	4	6	4	6	31	25	23	31	36	31	27	37
合 計 (A)	73	66	79	95	79	75	89	99	153	141	168	194
OECD의 總輸入 (B)	2,310	2,020	1,800	1,700	520	510	560	590	2,830	2,530	2,360	2,290
A/B (%)	3.2	3.3	4.4	5.6	15.2	14.7	15.8	16.8	5.4	5.6	7.1	8.5

(表 - 3) OECD諸國의 소련·東歐圈으로부터의 石油輸入

(單位: 萬b/d)

	소 련	東 歐 圈	合 計
82. 1 / 4 분기	115.3	43.3	158.6
82. 2 / 4 분기	155.3	46.1	204.1
83. 1 / 4 분기	112.4	54.2	166.6
83. 2 / 4 분기	160.9	63.9	224.8
84. 1 / 4 분기	147.0	55.0	202.0
84. 2 / 4 분기	?	?	*220.0

註: \*1984年 4~5月の 輸出實績 베이스

타나 1979년 이래의 經濟不振은 드디어 회복세를 맞게 되었다. 특히 鑛工業생산의 회복세가 두드러졌으며 (83년중 前年比 4%增) 거꾸로 農業은 약천후 등으로 전반적으로 신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東歐의 경기회복은 84년에 들어서도 그 基調는 변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84년 1~3월 鑛工業생산이 年 5.2% 신장, 84년 목표를 1~2% 초과달성하였다.

東獨도 84년 1~4월 GNP가 5% 상승하여 목표를 4.4% 가볍게 돌파하였다. 東歐경제 회복의 牽引力은 폴란드 경제의 회복과 수출의 확대에 있다. 同國은 다른 東歐제국에 있어서 중요한 에너지源인 石炭의 주요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工業用 中間製品的의 調達源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同國 經濟의 회복은 東歐경제 전체의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는 GNP가 1979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轉落한 이래 82년까지 4년 連續 經濟위기가 계속되었다. 이것이 83년 前年比 4~5% (政府發表)으로 5년만에 상승하게 된 것이다. 79년 이래의 經濟危機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기는 하였지만, 危機前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83년 실적은 GNP에서는 78년 보다 20% 하회하고 있으며, 鑛工業생산도 절정을 이뤘던 79년 실적에 아직 10% 정도 못미치고 있다. 폴란드를 위시하여 東歐 經濟好轉의 지렛대가 됐던 것은 수출의 확대였다. 東歐제국의

## II. 東 歐 諸 國

### 1. 經 濟

최근 수년간 不振을 면치 못하고 있던 東歐경제에 드디어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폴란드 經濟위기에 대한 응급조치가 취해졌고 西方에 대한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累積債務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東歐각국이 경제의 長期沈滯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실험이 코메콘의 결속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東歐제국(東獨,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GNP는 전년비 3% 상승으로 나

經濟는 수출에 비중을 둔 전형적인 輸出主導型이기 때문이다.

東歐諸國이 부진했던 이유로 西方제국의 경기후퇴에 따라 수출이急落하였기 때문이었다. 수출의 급감에 따라 東歐각국의 外貨사정은 일제히 꺾기에 몰리게 되었으며, 특히 81년부터 본격화된 세계적 金利 昂등은 東歐經濟를 더욱 수렁으로 몰고 갔다.

東歐諸國의 수출회복은 82년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1983년에 본격화되었다. UN 歐洲委員會에 의하면, 82년 對西方貿易은 수입량이 전년비 10% 급감한데 비해 輸出量은 6%의 신장세를 보였다. 同委員會는 세계경제가 침체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장세는 대단히 주목할만한 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세계적 不況의 영향에 따른 輸出價格의 하락에 의해 輸出額에서는 결국 전년에 비해 떨어졌지만, 輸入額이 이를 상회하는 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82년 對西方 貿易收支는 전년비 약 40億弗 개선되어 81년 29億달러의 赤字로부터 13億달러 黒字로 轉換한 것이다.

83년에 들어 改善勢는 더욱 진전돼 1~9月, 對西方 輸出量은 前年同期比 13%增, 額數에서도 同 2%의 증가를 보였다. 이 기간 輸入은 量的인 면에서 8%增, 額數에서 1~2% 줄어들었다. 歐洲委員會에서는 83년도 東歐제국의 對西方先進國 무역수지를 28億달러 前後의 黒字로 추정하고 있다.

## 2. 對外債務

東歐제국에 있어서 對外債務문제는 1980년 이후 최대의 經濟問題로 지적되어 왔는데 貿易收支의 호전에 따라 이 문제도 낙관적 전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東歐제국의 對西方債務는 79년부터 82년 사이에 거의 두배로 늘었으며, 82년말 債務殘高 합계는 660億달러에 달하였다. 이것이 83년중 30億달러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

## 3. 에너지問題

에너지問題는 東歐경제의 아킬레스 臍과 같은

(表-4) 東歐諸國의 對西方債務 推移

(單位: 億달러)

	79年末	80年末	81年末	82年末	83年末
불 가 리 아	20	23	27	3.3	27.5
체 코	21	29	23	27.5	30
東 獨	80	76	98	107.5	97.5
헝 가 리	27	39	56	72.5	70
폴 란 드	173	228	21	309	305
루 마 니 아	56	81	105	112.5	98
東 歐 6 個 國	377	476	600	662	628

요소로서 늘 東歐經濟의 진로에 어두움을 던져 주고 있다. 東歐각국은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는 소련에 대한 에너지依在度가 높다. 石油·天然가스의 5개국 對蘇依存度는 각각 93%, 60%에 달한다.

최근 소련은 東歐에 대하여 石油공급을 삭감하는 한편, 石油價格도 인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東歐쪽 입장에서 볼때는 死活이 걸린 石油供給에서 더블·펀치를 얻어맞은 격이 된다. 경기회복이 케도에 오르게 되면 東歐제국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소련 이외의 지역으로 부터 石油를 수입할 경우 귀중한 外貨準備分을 지출해야 되는 고충이 뒤따른다. 따라서 東歐각국은 소련에 대하여 石油공급의 증대와 가격인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 4. 소련의 對코메콘 石油輸出價格

소련石油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단히 다양하다.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對西方輸出로 최대한의 外貨를 획득하는 한편, 對東歐輸出로서 경제적 提携強化의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現時點에서 볼 때 소련의 外貨獲得 수단으로서 石油만큼 중요한 商品은 없다.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는 石油資源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東歐제국에 있어서 소련으로부터의 石油輸入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石油輸入量의 對蘇 의존도는 東歐각국 모두 81년에는 90% 정도에 이르고 있다. 西獨經濟研究所 소련·東歐에너지 전문가 베트켄·하겐氏에 의하면, 82년 對東歐 石油 公需삭감량은 1,100萬톤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감소분은 소련으로 부터의 天然가스 및 電力

의 供給增, 東歐各國內의 에너지節約, 原子力發電 育成, 國內 一般炭의 개발촉진에 의하여 어느 정도 補填되었지만 소련의 공급삭감이 커다란 타격을 준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소련에 있어서는 對東歐 石油輸出은 가격 및 量的인 면에서 援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가격에 있어서는 과거 5년간 世界市場 原油 가격에 기초한 移動평균과 東歐제국의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국별로 설정하고 있다. 또 소련으로 부터의 原油輸入은 hard currency로 지불하지 않고 루블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外貨準備高에 고민하고 있는 東歐제국에 있어서는 援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量에 있어서도 이 原油를 정제하여 西方世界에 수출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援助의 성질이 짙다고 하겠다.

소련 共產黨 고스테프 經濟第一副部長은 7월 코메콘 頂上會談後 갖은 기자회견에서, 소련이 코메콘 諸國에 수출하는 石油가격을 國際市場價格의 實勢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회원국들이 合意하였음을 밝혔다. 소련이 코메콘 諸國에 공급하는 石油가격은 지금까지는 과거 5년간의 國際市場價格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지만, 최근 시장 가격의 하락경향을 기준으로 볼 때, 소련의 石油가격은 국제시장 보다 오히려 비싸다는 불만이 터져 나와 頂上會談의 초점이 되기도 하였다.

新價格은 1년간의 國際價格 平均으로 정하고, 오는 85년 1월 이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소련의 對東歐輸出은 약 180萬b/d 이다.

## 5. 對이란 通商

소련·東歐제국이 이란과의 경제교류확대를 도모하기 시작했다. 체코와 이란 사이에는 經濟協力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覺書가 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코는 1984년 이란으로부터 石油 90萬톤을 수입한다.

(2) 兩國은 新油田탐사, 石油精製設備건설, 石炭개발등에 협력한다.

체코는 최근 2~3년간 이란으로부터 石油輸入을 늘려오고 있지만 양국간 國家레벨에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헝가리도 이란·이라크戰爭의 격화와 때를 같이하여 이란產 石油輸入을 확대, 이라크로부터의 수입은 현재 全無하다고 한다. 이란·소련 양국은 최근 電力·에너지分野에서 쌍방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覺書에 조인하였다. 이 각서의 주요 골자는 이즈화한, 아와즈 兩火力發電所(發電能力 약 800메가와트)의 건설과 카스피海 西部연안지역에 10萬W級の 댐 건설의 早期完成을 위한 협력강화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覺書에서는 가까운 장래 양국이 에너지를 교환할 것에 합의하고 있다. 이란은 페르시아灣岸, 카스피海 동부 가스田에 매장량 약 13.7兆m<sup>3</sup>의, 세계에서 소련 다음가는 대가스田을 갖고 있다. 이란革命前에는 「IGAT-1」을 건설, 소련에 최고 年100億m<sup>3</sup>의 天然가스를 공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혁명후인 80년 4월부터 價格面 등에서 소련과 異이 노출, 수출교섭이 중단상태에 빠졌던 것인데, 금번 覺書調印을 계기로 이 교섭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3년초, 이란의 親蘇派 政黨 투테黨의 스파이事件, 소련의 이라크 軍事지원강화등에 의해 냉각돼 왔던 양국관계는 요즘 급속히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樣相은 向後 페르시아灣 情勢, 이란·이라크戰爭의 向方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 6. 原子力發電建設의 강화

코메콘은 가맹국 대부분이 국내 에너지 資源이 빈약하기 때문에 原子力發電의 건설과 이 分野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메콘은 原發能力을 1990년까지 소련을 포함해 8萬메가와트로 늘릴 계획인데, 이 계획이 달성되면 原子力은 코메콘 總發電能力의 약 13%를 점하게 된다. 소련을 제외한 東歐제국과 큐바의 原發出力은, 82년 2.2萬메가와트, 原子力發電量은 1,230億Kw/h로서, 電力총생산의 7.7%에 달하고 있다. 이 原子力發電 能力을 90년까지는 3.7萬메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다. 소련을 제외한 코메콘諸

國에서 현재 36個, 總出力 2.3萬메가와트의 原發이 計劃中이거나 建設中에 있다. 소련에서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下請協力으로 튜메르니크에 코메콘 共同프로젝트의 형태로 出力 400메가와트의 原發이 建設中에 있다. 또 소련의 企劃, 헝가리, 체코, 東獨, 불가리아, 폴란드의 협력으로 헝가리의 樞斯原子力發電所를 增設하기 위해 이미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소련의 原子力 總出力은 현재 1.8萬메가와트, 5 個年計劃이 종료되는 85년까지는 總出力 2 萬메가와트의 原發을 建設하게 되며, 소련 總電力生産에서 占하는 비율을 14.1%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소련은 高速增殖爐 개발에 있어서는 先頭走者라 할 수 있으며, 베로야루스크 原子力發電所에서는 600메가와트의 高速增殖爐가 動되고 있다. 코메콘제국 중에서는 소련 다음으로 체코가 原子力發電 建設에서 높은 目標을 設定하고 있는데, 90년까지 加壓水型原子爐 12基, 總

出力 5,280메가와트를 運轉, 電力生産에서 占하는 原子力의 비율을 32%로 높일 계획이다.

### Ⅲ. 맺는 말

이상에서 소련 및 東歐圈諸國의 경제 및 에너지 動向의 近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食糧 不足, 外貨부족을 克服하기 위한 對西方 輸出品 目으로는 石油·天然가스가 매우 重要한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域內에서 큰 희생을 치루더라도 대량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西方의 에너지需給 가격체계의 平衡을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도 과거 數次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련·東歐圈의 經濟, 에너지, 石油, 가스事情 등은 항상 注意를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 생각한다.\* <JETI, 10月號>

## □ 產油國動向 □

# 第71次 OPEC 臨時總會閉幕 — 聲 明 要 旨 —

石油輸出國機構(OPEC) 회원국들은 特別協議會를 갖기 위해 1984년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 特別協議會는 臨時總會로 전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 總會에서는 70차 OPEC總會의 議長이었던 리비아의 H. E. Kamel Hassan씨가 리비아의 石油相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그에게 작별인사를 告하는 한편 OPEC에 대한 그의 努力에 진심으로 감사의 표시했다. 이에 따라 70차 總會의 交替議長인 인도네시아의 首席代表이며 同國의 에너지· 鑛物長官인 H. E. Subroto 박사가 만장일치로 議長에 推대되었으며 새로운 交替議長으로는 알제리의 首席代表이며 에너지 石油化學産業長官인 H. E. Belkasem Nabi씨가 만장일치로 選출되었다.

總會는 OPEC회원국인 나이지리아를 비롯, 노르웨이의 STATOIL, 英國의 BNOB 등 최근 일련의 油價引下事態 이후 世界석유시장국면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解決方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우디

의 Yamani 石油相을 議長으로 하고 UAE의 Ot-aiba 石油相, 리비아의 H. E. Fawzi A. Shakshuk 石油相署理를 委員으로 하는 閣僚委員會를 구성하였다.

總會는 世界에너지需給이 건전한 均衡을 유지하고 世界交易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現 油價體制가 고수되고 石油市場이 安定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石油市場이 安定되면 OPEC產油國뿐만 아니라 生産者나 消費者 등 모든 국제사회에 혜택이 돌아온다. 그러므로 總會는 OPEC의 基準原油(Arabian Light, API 34°, Ex. Ras Tanura)의 價格을 現 29\$/b로 高수하기로 하는 한편, 石油市場 安정을 위해 會員國 모두가 단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總會는 84년 11월 1일부로 1750萬 b/d인 現 OPEC 生産上限線을 1600萬b/d로 150萬b/d를 일시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